

사람들은 타인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는 사회 범주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①그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도식, 정서 등을 적용하고,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②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한다. 어떤 식으로든 편이 갈리면 사람들은 ③어느 편이나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사회 심리학자 타지펠은 이러한 차별 현상에 대해 연구하여 '사회 정체감 이론'을 정립하였다.

타지펠은 사회적 행위를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로 설명했다. 대인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속성인 이름, 성격, 태도, 지능 등을 바탕으로 다른 개인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이고, 대집단 행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특성인 인종, 성, 학력, 출신지, 직업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사회적 행위는 이러한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어떤 행위가 ④어느 쪽으로 기운 것인지는 여러 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는 집단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명확하게 부각되는가이다. 가령 노사 대표가 교섭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은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보다 대집단 행위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둘째는 집단 내에서 성원들의 태도, 행위, 의견 등이 얼마나 통일되어 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가이다. 이익 집단들은 ⑤성원들의 입장이 유사하다. 한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두 이익 단체들 간의 대립은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셋째는 ⑥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을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인 외집단의 성원에 대하여 지닌 고정 관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이다.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고정 관념의 강도가 강할 때 그 성원에게 보이는 행위는 고정 관념의 강도가 약할 때 보이는 행위에 비해 일반적으로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⑦내집단은 자기 자신이 소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내집단을 외집단과 구분하는 것은 ⑧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타지펠의 최소 집단 상황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을 점의 숫자를 많이 추정한 사람과 적게 추정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자막에 찍힌 점의 숫자를 세는 과제를 주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⑨과제 수행 결과와 관계없이 임의로 피실험자들을 집단에 배정했다.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만날 적이 없고, 만날 기대도 하지 않는 관계이다. 이른바 '최소 집단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의 성원 한 명과 상대 집단 성원 한 명에게 돈으로 환산되는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결과 ⑩피실험자들 중 84%가 자기 집단 성원에게 상대 집단 성원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내집단 성원과는 교류 가능성이 높고 우호적인 행위가 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집단 선호 경향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⑪이와 같은 설명은 최소 집단 상황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타지펠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모습에 자긍심을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도 자긍심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교류 가능성이 없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 얻고자 하는 자긍심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⑫이와 같은 사회 정체감 이론의 설명은 두 가지를 전제로 삼고 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 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며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자기 정체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집단을 대할 때 개인 정체감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⑬나타나지 않고 사회 정체감을 취하는 경우에 ⑭나타난다. 왜냐하면 사회 정체감을 취할 때 그 집단의 규범에 맞추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⑮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⑯최소 집단 상황에서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의 기회를 가진 성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고양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 정체감 이론은 자기 범주화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 범주화 이론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부각되는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취하는 범주 혹은 무리의식에 따라 그 범주가 지닌 특징들을 ⑰자신의 정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그가 취한 범주를 고려해 상대방의 특징을 파악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사회 정체감 이론처럼 개인적 정체와 사회적 정체감이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1. ①과 ②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①	타인이 속한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
②	자신이 속한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

2. ③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3. ④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 중 어느 쪽

4. ⑤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같은 이익 집단 내에 속한 성원들

5. ⑥과 ⑦을 보고 '외집단'이 되기 위한 조건 2가지와 '내집단'이 되기 위한 조건 2가지를 서술하세요. 이 때 '실제'와 '주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외집단	(1) 실제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음 (2) 주관적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함
내집단	(1) 실제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음 (2) 주관적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판단함

6. ⑧의 내용을 서술하세요.

외집단에 속한 사람보다 내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

7. ㉑의 내용을 서술하세요.

자막에 찍힌 점의 개수를 추정한 결과

8. ㉒을 보고 괄호 안을 채우세요.

(X : 점의 숫자를 많이 추정한 집단, Y : 점의 숫자를 적게 추정한 집단

S(X) : X에 속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점수, S(Y) : Y에 속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점수)

	S(X) > S(Y)	S(X) = S(Y)	S(X) < S(Y)
X	a	b	c
Y	d	e	f

(예를 들어, a는 X에 속하는 사람 중, X에 속하는 다른 사람 한 명에게 Y에 속하는 다른 사람 한 명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람의 수.)

$$0.84 = (a + f)/(a + b + c + d + e + f)$$

9. 앞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여 ㉓의 이유를 설명하세요.

최소 집단 상황에서는 향후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10. 다음은 ㉔의 내용을 나타내는 논증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1] 인간은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2] 인간은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지닐 수 있다.
 [1], [2] ⇨ [3] 인간은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3] ⇨ [4] 인간은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를 통해 (자긍심)을 얻는다.

11. ㉕과 ㉖의 주체('무엇'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지)를 서술하세요.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

12. ㉗의 내용을 서술하세요.

개인이 집단을 대할 때 개인 정체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사회 정체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는 현상

13. 다음은 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은 사회적 모습에서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나타난다. 따라서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의 기회를 가진 성원들의 자존심이 더 고양될 수 있다.

14. ㉞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를 3음절로 서술하세요.

내면화